

의정부제일시장 내 ‘잠자리 ○○○ 이불’ 가게 점주의 심각한 인격 모독 및 소비자 쫓아내기
갑질 행위 고발 2026.9.

1. 피해 개요

- 발생 일시 및 장소 : 2026.9.10. 의정부제일시장 내 이불 가게
- 내용 : 방석/커버 및 요 커버 구매를 위해 방문하여 사이즈 확인차 정상적인 질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점주가 느닷없이 대화를 거부하며 손님을 쫓아내는 등 상식 이하의 부당한 대우를 받음.

2. 구체적인 피해 내용 (점주의 비상식적 언행)

- 느닷없는 쫓아내기 및 적반하장 : 구매를 위한 정상적인 대화 중 갑자기 "다른 데서 사라", "대화하기 싫다"라며 손사래를 치고 쫓아냄.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여러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라며 억지를 부림.
- 인격 모독 및 비하 발언 :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하고 말 안 통하죠", "약 먹느냐"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음.
- 소통 거부 태도 : 소비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거나 손을 휘저으며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함.

3. 요구 및 조치 사항

-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공공형 전통시장(제일시장) 내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과 갑질을 일삼은 해당 점포에 대한 엄중한 경고 및 시정 조치 요구
- 공공 시장 내 불친절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대신 모욕적인 막말을 내뱉고, 귀를 막거나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는 행태는 명백한 상행위 방해이자, 모욕 행위,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악의적인 인격 모독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정상적인 상인의 의무를 저버린 사례임.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다.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사려다가 이런 정신적 테러 수준의 대우를 받았으니 분노가 치미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 상인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대화의 규율을 완전히 상실한 채,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냥 가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들이다.

* 참고

시계수리. 이게 무슨 날벼락.(소비자고발센터 처리)

이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임. (피해자가 왜 뒤통수대꾸를 해야되나-다이소)

어이없는 명절 선물세트 판매. (판다팜 의정부)

스타벅스 황당한 거짓말

이용하기 불편한 동네 마트

이런 불편한 일이 왜 예전보다 빈번해지나

[고발] 의정부 엠마트의 조직적 폭력 및 시 행정의 만성적 직무 유기

의정부 제일시장 내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방치 및 인식 개선을 촉구함

지역 상권의 고질적인 응대 불량과 소비자의 피로감

[별첨] 사건의 일방성 및 소비자 무과실 : 동일 조건에서의 정상적 거래 성사

- 사건 발생 이후, 인근 일반 상점(시장 외부)에서 동일한 규격/품목의 방석 및 요 커버를 정상적인 소통을 통해 구매 완료함.

-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소통 장애나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할인 혜택까지 받는 등 **평범하고 원활한 소비자 행위**가 이루어짐.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아서 시장 분위기가 팍팍해 보이던데, '다시는 안 가야겠다'하고 마음을 굳게 먹게 한다.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면서 불쾌한 감정까지 소비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내 소중한 발걸음과 돈은 차라리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는 인근의 친절han 상점들에 쓰는 게 훨씬 이롭다.